“생명들은 다 생명체 에너지로 태어나”

☞ 19면에서 계속

저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메뚜기도 또 풀 섶에서 나오는 벌레들도 다 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이 다 들이 아니에요. 들이 아닌 도리를 아시면은 그런 사고들이 그렇게 벼락같이 일어나지 않죠.

▲질문자4(통역):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인연들과 하나로 느낀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얘기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습 없어도 영혼은 살아

▲스님: 이거 봐요. 보이는 데는 내가 그걸 해결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해결을 꼭 해야만 되는 게 없어요. 안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서로 돌려요. 그러니까는 이 보이지 않는 진짜 나는 그걸 해결을 하려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알면은, 한번 결정적으로 말을 해 놓으면은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아실 수 없게끔 해결이 납니다.

▲질문자4(통역): 감사합니다.

▲질문자5(통역): 질문이 길었는데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명이 죽었다가 재생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수십 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아마 백 만 명밖에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늘어난 인구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는 또 살지 못하고 껍데기가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지면은 영혼이 살게 되죠. 그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게 돼 있어도 공부한, 진짜로 이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어나질 않고 어떤 돌도 자기 몸이 되고 집이 되고 또 어떤 산도 자기 몸이 되고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지 각색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5(통역):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질문을 다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니까 조금 서운했습니다.

▲질문자6: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뵙고 법문을 받들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북부 올덴북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올려야 할지 몰라 그 대신 제가 어떻게 해서 주인공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지원을 알게 되기 전 제 인생은 한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살얼음을 걷는 듯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른 채 저는 어느 날부터 저 스스로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멀리 말입니다. 사실 저는 무감각

자기 육신이 자기고
내가 모든일을 했고
내가 모든걸 가졌다고
단정지어 여러종교
나타나는 겁니다

해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느끼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갈망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에서는 결코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저와 제 안 사람은 독일 신문에 실린 독일지원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원을 찾은 저는 포근한 선원의 분위기에 매료되었으나 매우 조심스럽고 마음에 간격을 두는 태도로 견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원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려웠고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찾고자 하는 또 다른 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견제는 독일지원 스님의 따뜻한 배려로 저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직감에 서서히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스님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숙제를 하나 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는 스님 또한 저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숙제는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스님이 저를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작은 숙제를 푸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숙제의 내용인 즉 매일 마음 속 깊이 간절하게 100번을 ‘주인공!’ 하고 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집이 황고집이었던 저는 스님께서 똑같은 숙제를 두 번이나 내주었을 때야 겨우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제가 오늘날까지 마음 공부를 통해 얼마나 안으로 쳤는지는 제켜두고라도, 공부하는 동안 저에게는 세상에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고 각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불성에 놓고 관하라

서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해지더니 살도 약간 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와의 인연들을 대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했던 저는 그저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제 스스로를 되도록이면 외면하려 했던 제가 저 스스로를 똑바로 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는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자신을 알아 가는 과정인 이 주인공 공부는 뼈를 깎는 수행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알아 가는 것이야말로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하루에 100번씩 안으로 간절히 주인공을 불렀는지를 센 적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이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튼 철조망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걷어낼 엄두는 감히 내지도 못했습니다.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철조망을 걷어내는 마음의 숙제로부터 몸을 숨길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공부로부터 오는 마음의 고통을 똑바로 직시하면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 그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 또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을 스님께서는 스님의 생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 저희들의 귀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는 언젠가 스님의 진리를 전하는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원을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감사합니다. 진실로서 하고자 하는 공부를 정말 해 들어가는군요.

▲통역자: 스님, 다음 질문하실 분은 신문기자입니다. 탑지라는 신문에서 오신 기자 분입니다.

▲질문자7(통역): 스님,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선 독일에 이렇게 와 주셔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들 중에서는 과학과 스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접목시키고자 연구하는 그룹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 세상을 보면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의 삶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삶이 아닌 가상의 삶, 과학 속의 삶, 컴퓨터 속의 삶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 가상의 삶에서도 과연 불성이 있는 것 인지요. 스님께서는 과학을 많이 부처님 법과 접목시킨다고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립니다.

▲스님: 사실 있어요. 정신계의 자기가 즉, 불교에서는 주장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물질계이지 않아요? 이건 물질계의 모습이죠. 이건 물질계의 모습이니깐 그건 한계가 있구요. 그러나 정신계에의 모습이 없단 말이죠. 모습이 없이 그냥, 이 공부를 할 때에 눈이나 귀나 모두 몸뚱이 속에 있는 게 공생으로 돌아가죠. 공생으로 돌아가고 공심으로 돌아 돌아가고 공체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너무 물질계에 끄달려서 이게 그렇다 그러고 인정을 하고 저게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요. 보이는 것만 해도 그게 사실이지만 살아 나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 나가요. 그건 우리가 진짜로 보이지 않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살 수 있고,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간다면 뭐이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자기에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더래도 꼭 거기다가 그렇게 놓고 관하시면 돼요.

▲사회자: (독일어로 말함) (대중 박수)

▲스님: 아까 질문하러 왔던 사람이요,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다 이렇게 생명체 에너지로 태어나죠. 에너지로, 각각 어떠한 돌이든지 흙 속에 묻혔든지 어떠한 나무 속에 묻혔든지 모두 그것이 에너지로다 화해서 생명들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대중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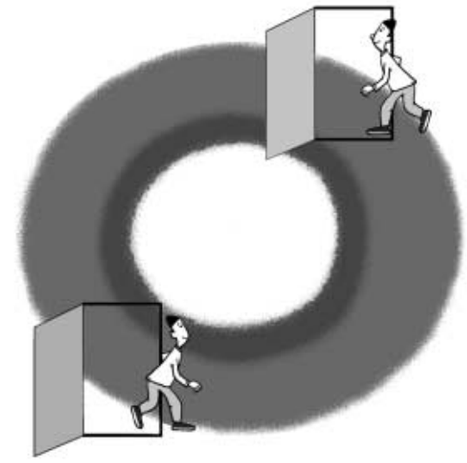
▲사회자: 여러분 모두 일어 서 주십시오. 이제 스님께서 법좌에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위 법문은 2001년 8월 11일 독일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둘 아니게 볼 줄 알면 눈귀 열려"

대행 스님 독일 에쎈 대법회 법문


그림 · 최주현

에너지가 나오는 자기 불성을 믿고
물질계와 정신계를 하나로 볼때
공체 · 공심 · 공용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한자리를 또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리를 꼭 알아야 하겠으니까 여러분도 다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조그만 씨앗이 벌어져서 나오듯이, 또 물에서 조그만 생물체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자기의 에너지입니다. 자기의 주인공이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을 때는 반드시 그 정신계의 자기라는, 그 때 애당초에 태어난 그 존재가 거기에 같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자 난자와 같이 합해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에너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성. 그 불성이 즉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나

말하자면 에너지로 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누구나가 다 각자, 여러분이 다 자기 에너지가 자기한테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불성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항시 자기를, 먼저 그 뜻을 알고 거기다 관하라는 얘깁니다. 애당초부터 끝까지 살아나가는데 일거수 일투족 다 그 자리를 믿고 거기다 놔야 됩니다. 거기다 믿고 놓지 않는 다면은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관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신이 나 아닌 나이니까, 내가 아닌 당신이 모든 걸 해 나가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소장 대장 눈 귀 코 할 것 없이 모두 띄어져야 되거든요. 눈도 떠져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모두 둘 아니게 함유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둘 아니게 되어야 만이 그 때 가서는 현실의 물질적인 나의 모습과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나와 둘 아니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 버리니깐 그 때서는 거칠 게 없고 즉 말하자면 공생이나 공심이나 또 공체나 공용으로 전부 걸림 없이 둘 아니게 되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둘 아니게 그렇게 완화하게 이 한 도량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도량 하면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그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은 모두 전체가 다 둘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움쭉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여기 오던 날 막 기침이 나고 그러더니 말이 이렇게 안나오는군요. 죄송합니다. (대중 박수)

그래 죽은 영가도 산 사람도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둘로 보지 않는다면은 모두 조상들도 다 한 몸이 돼서 제각기 살게끔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죽었거나, 어디서 차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도 걸림이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잘못 살아나가다 보면은 누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걸 모르고 마찰이 돼서 거기에 흡수가 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사 모시는 집을 가도 그렇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둘이 아니게 보고, 아무리 못났어도 못난 부분을 보지 마시고 나와 둘이 아니게 보시구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어찌 저럴까 하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핀잔을 받게 되고 자기가 나쁘게 돼요. 오늘은 말이 잘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말이 이틀동안 이렇게 나오네요. 얘기할 거는 많은데, 이 독일에 계신 분들은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르시더라구요.

조상들이 죽어도 죽은 대로 껍데기만 없어졌다 뿐이지 속의 뜻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모두 범접을 하고 그러면 식구가 모두 잘 살 수가 없이 되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상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깐 문제가 아주 크게 벌어지죠.

여기 독일 분들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을 해주신다면 말은 잘 못해도 그 뜻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겁니다.

◆**사회자**: 여러분, 이제 잠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 분의 질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무대 앞에 마련된 마이크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통역)**: 스님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스님**:그건 자기 주인공이라는 정신계의 자기가 있으니까 그걸 꼭 믿고 관하세요. 진짜입니다.

질문자1(통역): 감사합니다.

▲**질문자2(통역)**: 스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법문해주시면서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저희들이 스스로 뿌린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뿌리는 도대체 누가 뿌린 것인지요?

▲**스님**: 그 또한 마찬가지죠. 그것이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한테 있는 에너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합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고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시면은 모든 게 다 둘이 아니게 조화가 됩니다.

▲**질문자2(통역)**: 감사합니다 스님.

▲**질문자3(통역)**: 여러 종교를 바라보건대 종교의 원리를 듣고 있자면은 사실 간단한 한 원에서 서로 교차하는 그런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다 보면 여러 종교가 많아서 하다 못해 같은 종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고기 · 벌레도 똑같은 생명

▲**스님**: 그건 자기가 자기라고 하니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육신이 자기이고, 자기가 모든 일을 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니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나왔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왔다가도 재생이 돼서 다시금 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깐 재생이 되게끔 자기가 모든 걸 하고 가면은 그게 재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게끔 되고요. 그러고 둘이 아니게 하나로 돌아가야 합텐데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딴 데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질문자3(통역)**: 감사합니다. 스님.

▲**질문자4(통역)**: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저희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주위의 모든 인연들을 하나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같은 것도 안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 그렇게만 되면 교통사고도 안 나죠. 왜냐하면은 둘이 아닌 까닭에, 둘이 아닌 까닭에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깐 생각을 한 번 잘 해보란 얘깁니다.

☞ 20면으로 계속